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물리치료실』

1. 도입배경 _ 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창원공장에서는 3년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위험성 조사 등이 한창 사회적 이슈가 될 때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해위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60여명이 발생했다. 이는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47세인 고령화에 따른 영향도 있었으나 이때부터 자체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재해 근로자에 대한 재활시스템과 체력관리실도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

2. 물리치료실의 구성 및 운영 _ 물리치료실은 창원 제1공장과 제2공장 두 곳에서 운영하며, 설치하여 최첨단 물리치료기를 설치하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물리치료 운영은 제1공장이 오전에, 제2공장은 오후에 전문인력에 의해 운영되는데, 근골격계 질환 유해위험조사 결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령화에 따른 생활 질환 근로자들도 함께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실에는 별도의 재활치료실을 두어 재해근로자의 현장복귀를 돕고 있다. 의사의 진찰과 문진법에 의해 처방이 내려지면 물리치료사에 의해 전문적인 물리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체력관리실과도 연계된다. 체력관리실에는 전문 운동치료사 5명이 요가, 에어로빅, 헬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돕는다.

이러한 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창원공장의 시설은 인근지역 기업들로 하여금 모범이 되는 복지시설로 알려져 있다.

3. 그 밖의 건강지킴이들

가. 공정별 스트레칭

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창원공장에는 자율적으로 하루 일과 전에 실시하는 스트레칭이 있다. 업무는 다르나 체조는 항상 동일한 여느 스트레칭과는 사뭇 다르다. 보급 된지 3년이 되고 있는 본 스트레칭은 가공공정, 처리공정, 조립공정, 사무직에 대한 스트레



1937년 조선기계제작소로 출범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계산업의 발전을 선도해온 한국 최대의 기계회사, 지금은 세계적인 중공업업체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창원공장은 공작기계·자동화시스템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오늘 찾은 이유는 이곳에서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물리치료실이 운영되고 있다고하여 그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칭을 업무에 맞도록 개발하였고, 전문기관 체력지도사에 의해 시작된 지금 창원공장의 또 하나의 건강지킴이로 자리잡고 있다.

나. 청력 보존프로그램

청력 보존프로그램은 소음원 감소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소음성난청 요관찰자(C1) 이상 근로자의 청력손실 진행을 예방하여 추가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소음성난청 요관찰자 Zero화를 추구한다. 현장에 소음을 85dB(A) 이하로 낮추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음노출 평가와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요관찰자에 대해서는 업무 이동과 더불어 작업 공정을 공학적, 작업관리적 대책과 소음성난청 예방교육, 평가 등을 통해 요관찰자를 줄여나가고 있다.


다. 뇌·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프로그램

정기건강검진, 위험도평가서에 의해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을 건강군,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등으로 나누고, 업무적합성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통상근무, 조건부근무, 병가 또는 휴직, 작업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일차적인 조치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게 인상적이다. 이는 생활습관개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정에 건강상태와 식단표 등을 가정통신으로 보내 가정과 직장에서 함께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기도 한다. 또한 팀장은 월 1회 이상 질환자에 대해 정해진 일지에 의해 면담이 이루어지고, 이는 분기별 해당 BG장에게 보고 되어 관리된다.

4. 맺음말_ 곧 근골격계 질환 유해위험성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이 개발·완료되어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 확실한 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창원공장의 건강지킴이로 자리잡을 것이다. 지난해에 OHSAS 18001과 KOSHA 18001을 인증 받아 금년부터 정착기에 들어서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한국경제에서 수여하는 2006 산업안전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 곳은 유관기관의 추천으로 매일경제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대상에서도 그간 작은 결실을 맺을 계획도 가지고 있



다. 각 BG 안전보건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유럽의 안전보건시스템 벤치마킹을 하기도 한 이곳의 안전은 진보적이고, 활동에서 힘이 넘쳤다. 앞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개발·운영으로 더욱 과학적인 방법으로 안전에 접근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안전보건팀은 「우리나라 초, 중, 고등과정에 안전교육 시간이 배정되어 청소년시절부터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자리잡힌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너무 근로자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자칫 안전문화 정착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미래에 대해 격 정도 해본다. 

〈최종덕 기자〉